

“지적 장애인들 엄마·아빠 손잡고 신나는 그들이”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내 재가장애인 25명 대상 가족여행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오자)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인 자녀를 둔 지적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원관내 재가 장애인 25명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4일간 가족여행을 실시하였다.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기 힘든 지적장애인 가정에게 1박 2일간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추억 만들기 및 가족기능 강화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적(교육, 양육, 생활유지)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된 재가 장애인 가정에게 가족여행의 기회 제공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양육, 건강가치문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전남 완도알대의 문화를

약하고 체험을 통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여행에 참여한 김지수님(가명, 지적장애 49세)은 “우리를 힘 만으로 올 수 없는 곳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해주셔서 아무런 걱정없이 즐길 수 있도록 힘써주신 남원시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며 매우 뜻깊은 가족여행이 되었으며, 향후 본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하고 싶고 다른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오자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들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화합 도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 가정의 가족여행을 통해 부모-자녀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여행의 자유를 누리기 힘든 지적장애인 가정에게 1박 2일간 여행의 기회를 제공했다.

간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가족 기능회복과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구상원간 화합을 도모하여 가족의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무주 구천파출소 자율방범대, 야간 합동순찰 범죄예방 나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구천파출소장(경감 김윤곤) 자율방범대(대장 김종국)은 하절기 등산객 방문 및 관광철을 맞아 구천동 관광북구 범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순찰 근무를 펼치고 있다.

이번 협력자간 활동은 황금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특히 제4회 무주산골 영화제 행사와 맞물려 최근 장소를 불문하고 “물지마 범죄”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상가 주변 및 야영장 남·여 공동화장실 등에 대한 집중 합동순찰도 실시했다.

김윤곤 파출소장과 김종국 자율방범대장은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눈높이 협력자간 구축하여 안전속에 행복한 치안보대를 마련하고,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여성범죄 특별 방법활동 적극 추진으로 범죄분위기를 사전 차단,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관내 건축사 3명,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관내 건축사 3명이 최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명인건축(배종철), 담양이(전성민), 아진건축(김종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역의 인재양성에 사용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유아숲체험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7일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에 위치한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유아숲체험을 실시했다. 부모와 아이가 이터 체험행사는 숲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 강화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하고, 모녀대원으로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최초 軍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원광대 창업지원단, 5주동안 총 60시간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백현기)은 지난 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군창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훈련은 5주 동안 총 60시간동안 진행된다. 제1단계는 창업인성, 창업아이디어도출, 창업기회포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자신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찾고 2단계는 3D프린터 기술과 창업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업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훈련과정이 끝나면 선정된 창업아이디어는 전북도와 전북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창업멘토링, 마케팅, 자금지원 등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창업이 지원된다.

백현기 단장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역예정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덕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여름철 피서객 물놀이 안전확보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수상구조대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심신이 건강하고 남다른 봉사정신을 갖춘 대학생, 시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가능하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완주군 고산천 및 계곡 등 유원지에서 수변순찰 및 물놀이객의 안전문화 홍보, 안전지도와 교육 및 익수자 발생 시 기초 응급처치 등의 봉사업무를 수행한다. /인진수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호사랑 어른신 한마당 축제 개최

인후동(동장 최성식)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40여명과 나노지봉사단, 새마을부녀회 등은 지난 4일 온고을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어른신 1000여명을 초청해 제1회 호사랑 어른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제1회 호사랑 어른신 한마당 축제는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지역내 단체와 기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명랑운동회, 2부 중식봉사, 3부 노래자랑 등이 진행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황승일 인후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제1회 호사랑 어른신 한마당 축제를 위해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새마을협의회원과 지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봉사에 참여해주신 인후동 나노지봉사단원과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효자3동 자매결연지 농촌일손돕기

자생단체·직원 20명, 김제황산면 감자농가서

효자3동(동장 박병백) 자생단체와 직원 20여명은 7일 영농철을 맞아 김제시 황산면 감자농가를 잇는 ‘정영선 농가’를 방문해 감자줄기, 운반, 비닐제거 등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효자3동과 전주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연합으로 추진 70여명의 인력이 짧은시간 많은 일손을 거들었다.

박병백 효자3동장은 “농가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장수 계남면민의 장 문화체육장 류기행씨 등 4명 선정

장수군 계남면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재홍)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갖고 제26회 계남면민의 장에 류기행(문화체육장), 이창근(산업공익장), 이규택(애향장), 박명례(효열장)씨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류기행(52)씨는 명품미를 이장을 수행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수군과 계남면의 각종 행사 임원으로 참여하며 전북도 민체전에서 장수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각종 체육회 주관의 행사를 성황리에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4년 계남면 체육회장 재임 시 28년 만에 계남면의 우승에 큰 기여를 하며 계남면민의 위상을 높였다.

산업공익장 이창근(55)씨는 1987년부터 30여년간 논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변 농가를 위해 영농기술을 전파하고 특근노인과 저소득농가에 영농봉사를 실천해 소득증대에 앞장서었다. 현재 화양리 중앙미를 이장과 계남면 이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이장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애향장 이규택(56)씨는 현재 전주에서 동문특수인쇄산업을 경영하며 불우이웃 돕기 등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장수군 축제와 면민의 날 행사 경로위안잔치 등에 참석해 경품을 기증하는 등 지역발전에 후원해왔다.

효열장 박명례(76)씨는 30여년간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본인 역시 허리수술과 7~8년 전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2세의 시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4남녀의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시켰으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우며 이웃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시보건소, 방역장비 무료대여사업 전개

전주시보건소는 7일과 8일 이틀간 효율적 방역소독과 민원인들의 요구에 맞춤형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장비 휴대용 가열 연무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방역장비 무료대여사업 대상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56개소이며, 보건소는 방역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방역장비와 함께 방역약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장비 무료 대여를 신청한 한 공동주택 관리자는 “방역장비가 너무 비싸 구입이 부담스러웠는데 방역장비와 함께 약품까지 지원해 주니 이번 여름은 모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생해충을 완벽하게 박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방역장비 무료대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무주 산골마녀 봉사단, 산골영화제 기간동안 공방운영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이 주최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진욱)가 주관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산골마녀 봉사단)이 지난 『무주산골영화제』 기간동안 무료체험 공방 부스를 운영했다.

다양한 체험을 접하지 못하는 무주지역 초등학생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초청하여 평소 체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전원탈탈제, 가죽줄씨고리)을 제공했다.

산골마녀봉사단(이현정)은 “무주군 관내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nmaeil.com		2016년 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116		우5609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중원지사	남원지사	고창지사
010-9654-418	2-6655	김제지사	54-6855
임실지사	010-9942-2725	완주지사	24-6655
진안지사	43-3054	정읍지사	53-3367
010-2333-499	팔봉지사	25-6884	남원지사
010-2333-499	25-6884	남원지사	63-0955
서산지사	22-9417	군산지사	44-0157
010-6855-9955	익산지사	85-9923	부안지사
			58-0422
			무주지사
			010-2300-4238
*구독료 : 월1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선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